

듣기능력 신장을 위한 언어 실습실의 역할

김 기 석
(조선대학교)

Kim, Guiseok(1995). *Role of Language Laboratory for Improving Listening Ability Linguistics vol. 3*. It is a general trend to place the aim of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on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so as to enable communication with native speakers. The language laboratory has been mainly used as a teaching aid to develop this competence. It is therefore appropriate to review what role the language laboratory has played in Korea over the last thirty years. Thus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what effects (good or bad) the language laboratory has had and may have on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the future. The points of discussion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Necessity of Teaching Listening Skills; 2. Importance of Giving Priority to Listening; 3. Significance and Study Trends of the Language Laboratory; 4. Efficient Techniques for Using the Language Laboratory; 5. Problems of Practical Use of the Language Laboratory; 6.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듣기지도의 필요성

최 근 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을 배양하는데 두고 있는 것이 보편적 경향이다. 의사를 전달 또는 교환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에는 듣고 이해하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이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영어가 국제어로 사용되고 있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할 경

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모어화자(native speaker)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을 6년 또는 10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생존에 필요한 영어(survival English), 즉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영어교육이 저학년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구어(spoken language)의 청취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

언어실습실(language laboratory)은 바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가장 적절한 장소이다. 왜냐 하면 언어실습실은 학생으로 하여금 발화의 능동적인 청취자요 행위자가 될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청취하는 데 학생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느냐에 비례해서 외국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된다. 또한 체계 있게 편집된 교재를 토대로 계속 듣고 모방한다면 속달도 그만큼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언어실습실이 이러한 기회를 배가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언어실습실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교수방법은 구조주의 언어관과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학습이론에 근거를 둔 구두청각 교수법(Audio-Lingual Approach)이다. 구조주의 언어학이 외국어 학습에 기여한 원리는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체계이며, 이 체계 안에서 언어의 기능을 발휘하는 단위는 음성”이라고 하여 문자 언어보다 음성언어의 우위를 주장한데서 비롯되었다(Brooks, 1964:201).

오늘날 듣기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은 1960년대 중반 Rivers(1966)와 Newmark & Diller(1964)에 의해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듣기의 체계적인 개발은 말하기를 위한 기초로서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 하나의 기능으로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어실습실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고자 하는 외국어, 즉 영어가 어떤 특성의 언어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영어는 음악성이 있는 언어(rhythmical language)이며 그 음악성을 살려 주기 위한 수단으로 강세(stress), 고저(pitch), 휴지(pause), 리듬(rhythm) 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영어의 음악성을 살려주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취 이해력에서는 강세, 억양, 휴지, 리듬에 대한 훈련과 함께 문장 내용의 이해 훈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듣기 능력을 위한 외국어 적성시험이나 대학수학

능력 고사에 영어듣기 시험을 도입하게 된 것은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바람직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중등학교 현장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교사들이 청취 이해력을 지도하기 위한 준비에 큰 부담을 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의사전달능력을 위한 청취력의 중요성과 그 본질을 살피고 청취 이해력을 계발(啓發)시키기 위한 언어실습실의 역할과 그 문제점 등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2. 듣기 우선의 중요성

언어 교육에 있어 듣기와 말하기에 우선을 두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 Sweet(1899), Vietor(1882) 등에 의하여 종전의 문자중심 교육에서 음성중심 교육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직접식 교수법(Direct Method)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이 교수법은 초반에 독일과 영국에서 각광을 받았으며, 그 후 미국으로 건너와 the Committee of Twelve라는 12명의 저명한 언어 담당 교사들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나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그 후 이 교수법을 수정 보완한 독일 태생의 미국인 Berlitz(1852-1921)에 의하여 Berlitz Method가 보급되면서부터 회화기능을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지만 Berlitz School과 같은 특수 학교가 아닌 일반 보통의 학교에서는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그 조건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즉 학급단위의 문제(10인 이내), 원어민 교사의 확보 문제, 유아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성인의 외국어 교육에 적용시킨 점 등의 비판을 받게 된다.

동시에 그 후 1930년대에 들어서는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이론체계를 확립하기 시작한 구두청각 교수법이 대두되면서 언어 습득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단점이 지적되고 개혁의 소리가 높아져 구두청각 교수법은 새롭고 과학적인 교수법으로서 1960년대까지 각광을 받게 된다. 이 교수법의 원리를 받아들여 연구해 낸 교육기재가 바로 언어실습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된 이후 미국에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통역관을 필요로 하게 되어 ASTP(the Army Specialized Training Program)를 창설하게 되었다. 이 ASTP에서는 그 당시 인기를 모으고 있었던 구두청각 교수법의 학습원리에 입각하여 음향기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언어실습실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Army Method는 그 결과적인 면에서 큰 성과를 얻어 널리 보급되게 되었으며, 한국에서도 1954년 육군 부관학교에서 처음으로 AC타입으로 120석을 설

치하여 3개월간의 집중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시가 되어 1958년 연세대학교를 시발점으로 1969년 이후 공교육 기관에 audio-active type이 널리 보급되게 되었다.

저명한 언어 교육학자 Postovsky(1975)는 듣기가 말하기보다 먼저 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귀로 들은 것을 이해하고 둘째,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Postovsky는 이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계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Krashen & Terrell(1983)도 청취 이해력의 우선적인 계발을 강조하고 있다. Widdowson(1978)은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을 주고받는 것을 'talking'이라 하고 수용적인(receptive)면과 표현적인(productive) 면을 포함시키고 있다. 전자를 'listening' 후자를 'saying'이라 하고, 말을 듣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야 'talking'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Widdowson은 'hearing'과 'listening'을 구별하여, 'hearing'은 의미와는 상관없이 언어의 음운이나 문법구조를 인지할 뿐이며 'listening'은 의사전달과정에서 문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Evans & Evans(1957)에 의하면, 'hearing'은 청각 수단을 통해서 소리의 지각을 갖는 것, 다시 말하면 단순히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listening'은 소리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임을 뜻한다. 예를 들면, "I listened carefully but couldn't hear what they were saying." 과 "I wasn't listening to what they were saying but I could hear them quarreling." 등의 예문이 이해를 도울 것이다.

따라서, 'hearing'은 소리나 구조를 듣고 알아차리는 단계로서 초기에는 이와 같은 연습을 많이 하고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listening'을 하며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다. Rivers(1973)는 자신의 생각을 외국어로 표현하고 또 그 언어의 모어화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청취 이해력 훈련이 잘되면 말하는 능력도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게 길러지게 되고 읽기나 쓰기의 기능으로도 쉽게 옮겨 갈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과정에서도 이해(comprehension) 기능이 표현(production) 기능에 앞선다. 즉, 어린이는 말할 수는 없어도 상대방의 말을 먼저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에게는 음성교육이 문자교육에 우선하므로 언어의 4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이 자연스러운 순서로 지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먼저 이해력 계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학생들이 귀에 들어오는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표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구어의 인지력인

청취이해력이 먼저 길러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3. 언어실습실의 의의와 연구동향

언어실습실은 기계라기보다는 외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설치해 놓은 실습실이다. 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일종의 교수기재(teaching machine)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방음시설이 필요하고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실습실의 형태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학습자가 해야 할 내용도 다르다. 교수기재가 개별 학습을 위한 장치라면 언어실습실은 개별학습뿐만 아니라 학습을 위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 개개인을 대상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전체 학생을 총괄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많은 이점을 잘 이용할 수 있다.

언어교육 가운데 실습실(laboratory)이라는 용어는 일찍이 1880년경부터 사용되었으며, 1918년의 *Modern Language Journal* 에서 이미 언어실습실(language laboratory)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이해되고 있는 개념에 가까운 의미로서의 약칭 LL의 대두는 1930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940년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언어습득 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에 입각한 습관형성 이론(habit-formation theory)이다. 특히 대표적인 이론으로 Skinner의 작동적 조건화(operant conditioning)를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모방과 반복을 통하여 언어가 습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Fries가 주장한 Oral Approach와 LL을 병행한 Georgetown, Michigan, Ohio주 대학에서 LL은 크게 발전하여 교육기재 또는 언어 학습을 위한 실습실로서의 LL이라는 개념에까지 이르게 된다. LL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1950년 후반부터 60년대를 통해서 전자기술의 발달과 함께 하드웨어의 개발은 눈부시게 발전한바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비디오 교재가 개발되고 컴퓨터가 개발됨에 따라 언어실습실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Hutchinson(1966)은 LL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분석 검토한 결과 (1) 교사 (2) 교재 (3) 평가 (4) 연습문제 (5) 시설 등을 열거한다. 그는 학생수, LL의 수, 시설의 정비와 보존, 명칭, 용어 등 LL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Hedger(1969)는 LL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만능인 것으로 인식되어 널리 언어교육에 도입되는 것에 비해서 과연 다른 방법의 도입보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우수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LL의 음성지도 분야에서는 그 효과를 인정하지만 의미의 지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과, LL에서의 반복 훈련(repetition drill)이나 모방기억 훈련(mim-mem practice)도 최상의 지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심리학의 연구성과 등을 더 많이 받아들인 치밀한 지도법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indsey(1973)는 과거 10년간 LL이용을 통한 연구결과로서 (1) LL은 어디까지나 언어학습을 위한 보조(aid)이며 (2)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극히 중요하고, (3) 여러 가지 학습 수준에 맞는 LL의 종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습실에 booth가 없는 AA(audio-active) 타입은 초급자에 적절하며, AAC(audio-active circuit) 타입은 중급과 상급 학습자를 위해 적절하고, (4) 교사는 모니터의 조작능력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며, (5) 상황에 기초를 둔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15명 정도인 학급에서는 LL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언어실습실의 종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으나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서 (1) classroom setup (2) library setup (3) multiple resistance setup 등이 있다.

첫 번째, classroom setup은 청취 반응실습실(listen-respond laboratory) 형태로서 passive type이라고도 말한다. 이는 교사가 신호하거나 질문하면 학생이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경우로 한 가지 프로그램을 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호에 따라 학습한다. 실습실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설치 비용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라 각급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형태의 LL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실습실의 설치 요건은 가능한 한 산만한 곳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실습실의 단점으로는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자신의 목소리를 똑똑하게 들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습할 때 중얼거리거나 속삭이기 쉬우므로 외국어 학습의 성격상 나쁜 언어습관을 형성하게 되며 결국 자신을 외국어로 표현하고자 할 때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공부한 학생이 갖는 것과 똑 같은 억제심리(inhibition)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사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발음을 직접 교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실습실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 자신의 보조에 맞게 공부할 가능성도 희박하며 전통적인 교실수업처럼 융통성이 없다.

두 번째, library setup은 헤드폰이 달린 청취반응 실습실(listen-respond laboratory with activated headphones) 형태로서 active type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학생용 booth에 녹음기가 장치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불어, 영어, 독어, 스페인어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테이프를 골라 듣는다. 또 하나는 booth에 녹음기가 부착되어 있어 자기 혼자서도 녹음할 수 있으며 교사와 의사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이 형태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기가 반응한 목소리가 증폭되어 이어폰을 통해서 반향 되는 것이 특징이며 장점이다. 따라서, 학생은 자기의 발음, 억양, 강세 등을 모어화자의 것들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청취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 형태의 언어실습실은 교사와 학생간에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고 또한 학생의 발화를 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발화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세 번째, multiple resistance setup은 청각자료 배분센터(audio material distribution center)와 연결되어 있는 몇 개의 resistance hall을 가지고 있고 센터에는 자동으로 rewinding하는 녹음기를 가지고 있다. 학생은 resistance hall에 있으면서 audio-passive, audio-active, 또는 녹음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녹음기를 이용할 수 있다. 교사는 코스에 따라 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테이프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한다.

Hutchinson(1966)은 언어실습실의 장래 전망에 대해서 (1)전자 교실(electronic class)의 보급, (2) 개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실습실, (3) 교사에 의한 소집단 수업, (4) short-delay playback machine의 출현, (5) 영사기와 VTR의 도입, (6) dial-system의 도입 등이 가능하다고 본다. Lindsey(1973)의 전망은 (1) dial-access방식을 도입하는, 즉 전화상의 통화형식으로 수시로 학습할 수 있는 listening center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며, (2) 보다 시각에 호소하는 프로그램인 영사기, VTR 등이 준비되고, (3) AAC 타입의 LL로서 녹음이 곧 재생되는 장치가 설치되며, (4) 다양한 학습 단계에 대응하는 융통성 있는 기재를 설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실습실이 단순한 청각 위주의 훈련을 위한 시설에 머물지 않도록 시각자료의 개발과 VTR의 활용 그리고 상호작용(interaction)과 피드백을 즉각 이룰 수 있는 컴퓨터의 보조교수(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또는 컴퓨터 보조 언어교육(computer assisted language teaching) 프로그램의 개발이 언어실습실을 보다 활성화시켜 줄 것이라 믿는다.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프로그램으로 구미에서 개발된 PLATO(programmed logic for automated teaching operations)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컴퓨터 교육 연구소에서 개발한 컴퓨터를 이용한 독특한 교육용 기재이다. CDC 1604를 중심으로 단말기에는 특수 설계된 키보드가 달린 CTR을 비치하였으며 스크린을 반분하여 상반부는 슬라이드의 투영으로, 하반부는 학습자와 컴퓨터의 회화용 문자 디스플레이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개인화 학습을 위한 자동화 수단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PLATO 학습내용은 반복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완성된 훈련 프로그램과 개인별 학습지도 자료 모의 실험, 대화체의 문답, 계산처리,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내용으로 4000시간 이상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1978년 TESOL 학회에서 영어교육의 보충자료로서 컴퓨터 이용에 관한 발표가 있는 후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PLATO 시스템이 언어실습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언어실습실의 효과적인 운영방법

아무리 시설이 현대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해도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조작할 때 필요한 자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언어실습실의 경우 조작능력을 가진 교사가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자료, 즉 녹음 테이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녹음된 학습자료의 문제는 중·고등학교에서는 각 교과서마다 그 내용을 개작하여 제작한 녹음자료가 개발되어 있고 다양한 녹음자료가 상품화되어 널리 보급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자료를 선택할 때 서두르거나 실습실의 자료 수집함을 채우기 위하여 녹음된 자료를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녹음된 자료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투자할 때 많은 주의를 요한다. 또한 여러 가지 교수방법에서 유용하다고 입증된 교재들도 언어실습실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견본을 직접 시연해서 설치된 실습실에서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한가를 알아보아야 하고 또한 학생들 수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없이 선택된 자료는 학생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좌절시키는 경우를 유발할 수 있다.

모든 학습에 있어서 교사의 위치는 중요하며 교사의 책임이 무겁고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언어실습실의 경우 녹음기를 틀어 주고 학생 스스로 하도록 맡겨 두면 이 수업은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기계의 종류에 따라 교사의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계가 passive type으로 녹음된 테이프 속에서 질문하면 학생이 대답하거나 문장을 따라 읽는 훈련만으로는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한다. 교사는 움직여야 하며 마스터 콘솔 앞에서 앉아 있기보다는 학생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학습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테이프를 들려주는 시간도 적당히 조절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헤드폰을 끼었을 때 20분을 초과하면 오히려 싫증을 내기 쉽다. 그러므로 한 시간 동안 앉아서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시키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20분 정도 연습한 후 헤드폰을 귀

에서 멀리하게 하고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두로 물어 보기도 한다. 때로는 간단한 음악을 들려주면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이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학습지도 방법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교실에서 지도하는 교사와 분리해서 별도로 언어실습실을 전담하는 교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교실에서 지도하는 교사가 언어실습실에 들어가서 지도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한 마디로 유능한 교사이어야 한다.

언어실습실은 하나의 방법(method)이 아니라 협조자(helper)이다. 그러므로 실습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협조자라면 학습자료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 사전에 테이프의 준비는 물론, 테이프 내용이나 테이프 질이 점검되어야 한다. 구두청각 교수법에서는 학습자료로 만들 수 있는 많은 기술을 제시해 주고 있다. 테이프 내용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 준비가 되어야 하고 듣기, 말하기 외에 읽기와 쓰기에 관한 내용도 프로그램화되어야 한다. 언어실습실에서는 종전의 이론과는 달리 듣기나 말하기 연습만을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듣기와 말하기 못지 않게 읽기와 쓰기의 기능도 다루어 줄 수 있는 녹음테이프이어야 하며 교사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지도해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언어 학습은 네 가지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종합 기능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의 개발이 다양하게 보급되어 있어서 학생의 수준에 알맞은 자료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자료 선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Rivers(1981:412-5)가 제시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교사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언어실습실의 학습자료가 더 중요하다. 학생들이 언어실습실을 사용하는 경우, 처음으로 언어실습실 수업을 받게 되는 데서 오는 심리적인 긴장감이나 부끄러운 생각을 버리고 자신 있게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교사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정도에 맞는 교재선택, 교수방법, 반편성 등이 요구된다. 학생들이 언어실습실 수업에 경험이 없으므로 기재 사용법, 목적,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초보자에게 치밀한 계획의 수업이 되지 않는 한 언어실습실의 능률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외국인의 말을 처음 듣게 할 때 테이프를 엄선하여 표준발음을 듣게 하고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함이 필요하다.

궁극적인 언어학습의 목표는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 있다고 볼 때, LL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가능하다면 사회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언어학습의 기본적인 원리이므로 언어실습실에서도 듣고 반복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 학

생과 학생 사이에 자유롭게 언어활동을 할 수 있는 모형, 즉 연습 문제, 대화, 읽기 자료, 받아쓰기 자료, 노래, 연극은 물론, 청취해야 할 자료, 모방해야 할 자료, 기록해야 할 자료, 문장 바꿔쓰기 자료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LL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비교적 개방적인 유형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교사와 학습자, 혹은 학습자들 사이에 빠른 전이가 일어나야 하는 게임이나 연극을 할 수 있도록 LL의 booth를 벽면 쪽으로 설치하여 이러한 활동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단위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이러한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사료된다. 또한 LL에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억제심리를 줄이기 위하여 가끔씩 대중가요의 사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5. 언어실습실 활용의 문제점

Rivers(1970:321-322)는 언어실습실의 장점을 12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한바 있다 (1) 외국어 교육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원어민의 말을 분명하고 변별력 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2) 학생 본인이나 교사가 원하는 만큼 원어민의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 (3) 녹음된 자료에 의한 수업은 학생이 원어민의 말을 일관되게 그리고 지치지 않게 모방할 수 있는 모형을 제공해 준다. (4) 학생은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 등의 음성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원어민의 말을 청취할 수 있다. (5) 학생들에게 그의 동료 학생들 앞에서 어색하게 외국어를 발화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억제심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 학생은 대단위 학급에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서 실습실 수업을 통해서 외국어를 듣고 사용할 수 있다. (7)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부터 교사를 자유롭게 해주므로 교사로 하여금 개별 학생들의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8) 학생이 자신의 말을 원어민의 말과 객관적으로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9) 학생이 각 언어 요소를 다음 요소로 옮겨가기 전에 그가 원하는 만큼 여러번 반복 연습할 수 있다. (10) 보다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유형으로 학생이 발화한 외국어를 평가할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평가용 발화 테이프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서 일련의 개별 면담에서는 불가능한 면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만약 발화 테이프가 수업시간에 콘솔에서 만들어진다면 개별 평가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그들의 연습을 계속할 수 있다. (11) 교사가 자신의 조음과 억양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에서 그의 언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12) 학생이 자신의 보조로 공부할 수 있고 자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연습에 몰두할 수 있게 한다.

위에서 열거한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언어실습실이 우리 나라에 최초로 설치된 이래 30여년이 경과되었는데도 LL이 영어교육에 기여하는 바 크다는 유용론과 아울러 들인 돈과 시간을 따지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무용론 내지 비판론이 꾸준히 있어 왔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비판론의 가장 단편적인 표현으로 LL시간은 학생들편에서도 잠자는 시간이요, 담당 교사 편에서는 틀어놓고 쉬는 시간이라는 비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론적인 면에서 학자들에 따라 LL의 효과가 그리 기대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측면과 언어학습에 아주 유용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LL이 이론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우리 나라에서의 현재와 같은 운영으로는 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언어실습실 활용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우선 언어실습실에 관한 비판론적 입장에서 이론적 요인과 실질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론적 요인을 살펴보면 언어실습실에서 사용하는 학습방법이 처음에는 구두청각 교수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반복연습이 필수적이라는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과 행동주의 심리학 이론에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인지주의 심리학과 변형주의 언어학 이론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새로운 외국어 교수법으로 내세워진 인지 규칙 학습이론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언어실습실에서는 외국어의 소리를 듣고 따라 하는 완벽한 수업을 잘 받는 것 같았으나 그 상황을 떠나면 병어리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때, 언어학습이란 반복 연습으로 제한된 수의 문형이나 문장들을 익혀 가지고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언어 규칙들을 배워서 이해해야만 그 규칙들에 의한 무한한 수의 문장을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결국 언어를 자유 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학습이론이 도입된 셈이다.

두 번째, 실질적 요인으로는 언어실습실의 청각기계를 이용한 교사와 학습자간의 개별적인 교수방법이라는 장점이 우리 나라 교육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 개개인과 듣기와 말하기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언어실습실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간에 시선이 마주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사이에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동기 유발에 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장시간의 이어폰 사용이 학습자로 하여금 권태감을 쉽게 가져다 줄 수 있다. 습관형성 과정이라고 할 정도의

듣고 따라 하는 훈련을 시키는 언어실습실에서의 학습활동은 마치 앵무새에게 말하기 훈련을 시키는 학습 지도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언어실습실 수업의 자극과 반응에 의한 학습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유의적인 학습(meaningful learning)과 자기 발견 학습(discovery learning)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경제적 요인으로서는 교육 효과(output)에 비해 투자(input)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언어실습실을 이용한 교육효과는 투자가 훨씬 적은 녹음기 사용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언어실습실 조장을 위한 전문 교사의 자질 부족은 물론 소홀한 시설의 관리 및 유지 등으로 기계 고장이 많아 수업이 중단되거나 지장이 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언어실습실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어실습실이 그 질이나 양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지니는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영어학습의 이론에는 지금 많은 가설이나 학설이 난립해 있지만 영어학습은 학생들이 영어소리에 많이 그리고 자주 노출되어야 하며, 어느 시기에 이르면 발화해 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하고, 그렇게 습득된 기능이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발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언어실습실의 활용은 분명히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영어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어로서의 의사전달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있다. 즉,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영어를 써서 느끼고 생활하며 의사나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물론 언어학습의 최선의 방법은 실제 상황에 투입되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그 말이 사용되는 곳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배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깨우쳐 가는 것이 습득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 상황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영어를 잘 배우도록 도와 줄 수 있는지가 우리의 관심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언어는 많은 노출과 연습이 있어야 습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와 같은 학교 교육의 여건에서는 언어실습실의 역할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기계가 교사 위에 선다는 입장은 절대로 아니다. 항상 교사를 위한 보조물로서

혹은 조력자로서 언어실습실은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언어실습실 학습의 역할에 관해서 살펴본 결과는 학생의 기계 사용법에 대한 교육강화, 교사의 기계 조작법 숙달, 교수방법의 연구, 기재 및 관리에 대한 철저, 학생의 연습과 복습, 학습자의 정도에 따른 반편성,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학습자료의 개발, 교실수업과 언어실습실 학습의 연계성, 언어실습실의 시설 확충, 언어실습 시간의 충분한 확보, 청취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문항의 개발 등에 대한 제반 문제들을 과감하게 개선 운영한다면 언어실습실 수업은 의사전달을 위한 영어교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이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학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제 6차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의 의사소통 기능을 강화한 교과내용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어실습실의 시설이나 보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으로 시청각 기자재 도입의 강화와 언어실습실 교육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rooks, N.(1964).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2nd ed.).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Evans, B and C. Evans.(1957). *A Dictionary of Contemporary American Usage*. New York: Random House.
- Hedger, B.(1969). "Some Questions about Language Laboratories", *ELT Journal*,23,2,132-38.
- Hutchinson, J.(1966). "The Language Laboratory: Equipment and Utilization", In Valdman(ed.), *Trends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McGraw- Hill.
- Krashen, S. and T. Terrell.(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Oxford: Pergamon Press.
- Lindsey, P.(1973). "Language Labs: Some Reflections after Ten Years", *ELT Journal*,28, 1, 5-10.
- Newmark, G. and Diller, E.(1964). "Emphasizing the Audio in the Audio-Lingual Approach", *Modern Language Journal* 48, 1, 18-20.
- Postovsky, A.(1975). "Priority of Oral Comprehension in the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Proceedings of*

- the 4th AILA. Congress Stuttgart.*
- Rivers, W.(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vers, W.(1973). "From Linguistic to Communicative
Competence", *TESOL Quarterly* 7, 1, 25-34.
- Rivers, W.(1966). "Listening Comprehension", *Modern
Language Journal* 50, 4, 196-204.
- Widdowson, H.(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김귀석